

September 29, 2006

내일신문

“北, 핵 포기땐 동북아은행 설립해 지원”

박근혜 제안... “EU·세계은행 등서 공동출자”

독일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(한국시간) “북한이 핵무기·미사일 등을 완전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(NEADB)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 박 전 대표는 이날 베를린 아데나워재단에서 ‘독일과 한국: 함께 열어가게 미래’란

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. 박 전 대표는 “북한의 핵개발 포기유도를 위한 체계적이고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”고 배경을 설명했다. 동북아개발은행은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골과 유럽연합(EU), 세계은행(IBRD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국

제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는 박 전 대표의 새로운 제안이다. 또 동북아은행을 통해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,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개발에도 투자하지는 것이다. 박 전 대표는 “일단 5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되, 한국이 15억달러를 대는 등 30억달러는 역내 국가에서 마련하면 된다”고 말했다. 베를린=김상협기자

9/29내일
“북핵 포기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추진”

박근혜 전대표, 아데나워 재단서 연설

독일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28일(현지시간) “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(NEADB)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
박 전 대표는 이날 베를린 아데나워 재단에서 ‘독일과 한국: 함께 열어가게 미래’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.

그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관련, “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골과 유럽연합(EU), 세계은행(IBRD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 출자,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,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개발에도 투자하지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그는 “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되, 한국이 15억달러를 대는 등 30억달러는 역내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”이라며 “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

투자유발효과가 10배 정도 됐다”고 덧붙였다.

박 전 대표는 이어 “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히 하기 위한 ‘동북아안보협의체’로 발전해가기를 희망한다”며 “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안보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를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(NEASEC)로 확대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“취임한 뒤 새로운 지도력이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해 축하한다”고 인사했고, 메르켈 총리는 “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느냐. 성공하기를 바란다”고 덕담했다.

박 전 대표는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주재 미군의 역할에 대해 물었고,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“미군이 이란 등 다른 곳을 가는데 중간기지로 주로 활용하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. 기지를 폴란드로 옮긴다면 섭섭해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베를린=연합뉴스 추승호 기자

September 29, 2006

내일신문

Übersetzung

Artikel 1

„Nach Aufgabe des Atomprogramms Nordostasiatische Entwicklungsbank gründen und Nordkorea unterstützen“

Diesen Vorschlag machte Park Geun-Hye,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der Grand National Party (GNP), während ihrer Rede mit dem Titel „Deutschlands und Koreas gemeinsame Zukunft“ in der Konrad-Adenauer-Stiftung in Berlin. Zusammen mit mehreren Abgeordneten und dem KAS-Landesbeauftragten für Korea, Marc Ziemek, nahm sie mehrere politische Termine in Deutschland und Brüssel wahr.

Artikel 2

„Nach Aufgabe des Atomprogramms Gründung der Nordostasiatischen Entwicklungsbank vorantreiben“

Diesen Vorschlag machte Park Geun-Hye,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der Grand National Party (GNP), während ihrer Rede mit dem Titel „Deutschlands und Koreas gemeinsame Zukunft“ in der Konrad-Adenauer-Stiftung in Berlin. Zusammen mit mehreren Abgeordneten und dem KAS-Landesbeauftragten für Korea, Marc Ziemek, nahm sie mehrere politische Termine in Deutschland und Brüssel wahr.